



11 단계 :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출 3 : 13 - 22

2012. 2. 22 (수), 2. 25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I. 출애굽기 (Exodus)

1. 저술시기 : 기원전 1450-1400

- 1) 율법은 아브라함과 계약 후 430년 뒤에 주어짐 (갈 3:17)
- 2)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종이 될 것임 (행 7:5-7)
- 3) 입다가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30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 (삿 11:26)
- 4)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 후 480년 뒤에 시작됨 (왕상 6:1)

2. 책의 주제

- 1)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달리 자연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 밖에서와 자연을 넘어서서 존재.
- 2)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 3) 역사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 4) 하나님은 부정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자이시다.
- 5) 출애굽은 미래 구속의 패러다임이다.
- 6) 모든 종교적인 달력과 의식들은 출애굽 사건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다.
- 7) 역사는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된다.

3. 책의 개요

1)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가: 1-3장

A. 이스라엘의 백성들(1장)

그들의 변성(1:1-7), 그들의 신음(1:8-22)

B. 모세의 등장(2:1-10)

모세의 위험(2:1-4), 모세의 구원(2:5-9), 모세의 이름(2:10),
모세의 성장(2:10)

C. 모세의 선택 (2:11-15; 히 11:23-26 참고)

애굽 사람을 죽임(2:11-22), 이스라엘 사람을 도움(2:13-15)

D. 모세의 소명

광야를 방문(2:16-22), 불타는 떨기(3:1-3), 하나님의 음성(3:4-10)

E. 모세의 불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2)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 4-12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3) 이스라엘의 여정 : 13-40장

A. 애굽에서 출발(13장), 홍해를 건넌(14장), 만나와 메추라기(16장)

B. 십계명(20-24)

C. 성막(25-40)

자료 수집(25장), 가구(25장), 천(26장), 구조(26장), 성막 뜰(27장), 등불(27장), 기름부음(30장), 브사렐과 오홀리압(31장)

D. 성막제작이 연기됨(32-34장)

E. 성막이 준비됨(35-40장)

II. 애굽의 종교들

1. 신성한 동물과 타자성(sacred animals and otherness):

동물-신(animal-gods)

1) “어떻게 신들이 동물과 연결될 수 있는가?”

헬라, 로마와 초기 기독교는 동물이 애굽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고 충격을 받음. 지네(centipede)나 두꺼비(toad)도 사용됨.

애굽인들에게는 동물 자체가 종교적 중요성을 가짐.

이는 은유적 의미가 아니라, 신성과 실제 동물 간의 이상한(strange) 연결

이 있음. 따라서 고양이, 개, 매(falcons), 소, 악어 등이 미이라화 되어 있음. 애굽인들은 실제로 신의 성품이 매에 나타나있다(manifest)고 믿음.

예)

가. 호루스(Horus): 매(falcon)이며 그 눈은 태양과 달이고, 숨결은 북풍.

나. Thoth(몸은 사람, 머리는 파오기) :

달(moon)과 동시에 바분과 함께 파오기(ibis)에게도 나타나 있음.

다. 아누비스(Anubis): 자칼의 형태이며, 사막 무덤의 신으로 나타남.

파피루스에는 인간의 몸과 자칼의 머리로 그려져 있음.

라. 여신 하솔(Hathor)은 소로 나타나며 인간의 얼굴에다 소뿔, 소귀를 가지고 있음.

신들은 여러 형태를 사용함.

애굽인들은 동물들에게서 종교적인 경외감을 느낌. 즉, 타자성(ootherness)을 느낌. 이는 신학자 오토가 말한 “거룩함”의 감정일 것.

2) 우주는 정적인 실체(static reality)

애굽인들은 동물들의 지혜와 활동과 능력 안에서, 특히 정적인 실체 안에서 초월성을 느낌. 동물들에게는 지속적인 세대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음. 이러한 모습은 사람과 달리 창조의 근본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음.

이들에게 우주는 “변화가 없는 전체 속에 갇힌 리듬 운동(a rhythmic movement contained within an unchanging whole)”으로 바라봄. 사회도 이를 반영함. 인간은 이를 따르지 않음. 동물은 이미 정해진 삶의 방식을 따름. 따라서 동물은 인간과 다르며 초인간적임(superhuman). 이러한 동물의 다름(ootherness)이 신성으로 여겨짐.

3) 우주적 신들과 인간의 문제:

몇몇 동물들은 생명이 생겨나는 우주적 신과 연결되어 있음(태양, 지구, 하늘, 공기, 물 등).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은 진보된 종교의 모습. 이런 신들은 지금까지의 신들보다 훨씬 뛰어남.

Hathor : 소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형태로 기술됨.

Nut(하늘)은 여인의 형태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태양과 별의 어머니로서

소(cow)로 그려짐.

태양 : 매(falcon) 또는 매의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태양표면을 왕관으로 쓰고 있음. 우주적 신들은 초월적 힘과 동시에 질서를 가짐.

4) 우주적 신과 인간의 문제들 : 정의, 사후 세계, 삶의 문제 등

사후 세계의 문제는 매일의 태양 운동과 별의 움직임과 연결됨.

태양은 여러 문제와 연결됨.

태양신 Re는 창조주로서 만물의 기원이며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며, Nut(하늘)이 다시 태어나게 함.

지역마다 신들이 다름.

멤피스: 땅의 힘인 Ptah가 창조주이며,

헬리오폴리스와 헤르모폴리스: 태양의 힘이 창조주임.

엘레판틴: 염소(ram)으로 나타난 Khnum이 창조주임.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신: Amon-Re

공기는 태양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힘이며,

수도인 테베는 태초부터 아몬 신을 바람 속에 “숨겨진 신(Hidden One)”으로 숭배함.

테베인들은 또한 태양신 Re를 숭배함. 기원전 2천년부터는 두 신이 하나가 됨(Amon-Re).

5) 애굽 종교의 한계 :

Amon-Re가 최고의 신이지만 자연에 내재함으로 활동함.

땅의 신인 Ptah는, 초월적인 신으로서 생각과 말로 만물을 창조함.

결론 :

애굽 신들은 자신들의 현현(manifestations)에 갇힘.

힘을 갖지만 한계가 있음.

신의 모든 활동들은 인간의 존재에 한해서 이해됨.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탄생이며,

달이 기우는 것은 Horus의 눈이 아프기 때문이며,

보리가 빵이 되는 것은 오시리스가 죽었을 때임

출애굽의 여정

I. 바다, 호수, 강 그리기 (푸른색 싸인펜)

1. **지중해** : 지도 위 읍바 오른쪽 위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줄을 긋는다.
읍바 왼쪽에 “지중해” 라고 쓴다.
2. **나일강** : 지도 왼쪽 늪에서부터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줄기들을
따라 줄을 긋는다. 늪 오른쪽에 “나일강” 이라고 쓴다.
3. **홍해** : 지도 아래끝 엘토르 아래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줄을 긋는다.
엘토르 아래에 “홍해” 라고 쓴다. 홍해 왼쪽 만 안에 “수에즈만” 이라고
쓴다. 홍해 오른쪽 만 안에 “아카바만” 이라고 쓴다.
4. **사해, 요단강** : 지도 오른쪽 위 여리고 아래 호수변을 따라 줄을 긋는다.
호수 안에 “사해” 라고 쓴다.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강줄기를 그린다.
강줄기 오른쪽에 “요단강” 이라고 쓴다.

II. 광야 표시하기 (갈색 싸인펜)

1. **수르 광야** : 지중해 아래 이스말리아 오른쪽에 “수르 광야” 라고 쓴다.
2. **신 광야** : 수에즈만 오른쪽 둑가 아래 “신 광야” 라고 쓴다.
3. **바란 광야** : 아카바만 위쪽 끝 에시온 게벨 왼쪽에 “바란 광야” 라고 쓴다.
4. **신(진) 광야** : 사해 아래 가데스 바네아 오른쪽에 “신(진) 광야” 라고 쓴다.

III. 지명 표기하기 (초록색 싸인펜)

1. **애굽, 고센** : 나일강 하류 부근에 “애굽(이집트)” 라고 쓴다.
람세스 아래에 “고센” 이라고 쓴다.
2. **시내 반도** :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시내 반도” 라고 쓴다.
3. **미디안** : 아카바만 오른쪽에 “미디안” 이라고 쓴다.

4. **가나안** : 사해 왼편 아스돗과 예루살렘 사이에 “가나안”이라고 쓴다.
5. **아말렉** : 가나안 아래 가데스 바네아 위에 “아말렉”이라고 쓴다.
6. **암몬, 모압, 에돔** : 사해 동편 디본 옆에 “암몬”이라고 쓴다. 그 아래 길하레쉬 아래 “모압”이라고 쓴다. 그 아래 부논 아래 “에돔”이라고 쓴다.

IV. 출애굽의 여정 그리기 (붉은색 싸인펜)

1. 고센 지역에 위치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숙곳, 비손, 비하히룻, ④홍해,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을 지나 여벨 무사(“모세의 산”)에 이르는 화살표를 그린다. 여벨 무사 아래 “출11-19장”이라고 쓴다.
2. 여벨 무사에서 출발하여, 디베라, 기브룻 핫다아와, 하세룻, 에시온 게벨 왼편, 바란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화살표를 그린다. 가데스바네아 아래 “민10-14장”이라고 쓴다.
3.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지나고 ⑤ 에돔을 아래 방향으로 우회하여 모압, 암몬을 지나고, 여리고의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는 화살표를 그린다.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오른편에 “민20-22장”라고 쓴다.

